

三國時代 婦女首飾의 樣式에 관한 研究

裴 貞 龍

一、

우리나라 婦女首飾이 어느때부터 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增補文獻備考에 檀君紀元年의 「敎民 編髮蓋首」①라고 한 것을 보면 여기에 男女의 區別은 없지만 檀君開國元년부터 百姓에게 머리를 編髮하고 머리에 쓰는 法을 가르킨 것으로 미루어 首飾의 重要性은 그 歷史가 오래인 듯하다.

그러나 上古時代 및 三國時代의 婦女子髮樣 및 叙類首飾에 關하여서는 자세한 記錄이 없어 確實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三國時代의 婦女髮樣 및 그에 따른 叙類首飾에 關하여서 國內外 古墳壁畫②와 약간의 出土品, 그리고 몇 句節의 史料로서 參考하고자 한다.

二、高句麗

數個의 高句麗 古墳壁畫에 보이는 高句麗 婦女髮樣은 壁畫의 內容에서 貴婦人과 侍女, 演藝人等 多樣한 階層의 몇 가지 形態로 된 髮樣이 보이고 있다③.

첫째 高句麗 古墳中에서 가장 年代가 確實한 墳墓인 黃海道 安岳郡 兪順里에 있는 三五七年의 安岳三號墳(多壽墓) 前室西側室에 主人과 夫人 座像圖가 있다. 이 壁畫의 夫人髮樣은 頭髮의 中央에 高髻를 올리고

두 가닥을 左右로 테처럼 둥글게 돌린 다음 다시 양끝을 左右로 늘어뜨렸으며 머리를 高髻中間에서 끈 또는 裝飾物 같은 것으로 졸라 매고 거기서 左右로 늘어뜨린 것이 얼핏 옆으로 내려와 있다(插圖1). 이것은 태 모양으로 둥글게 卷束한 것으로서 마치 朝鮮王朝 後期의 加髻틀인 띠 구지 形態와 비슷하다④.

둘째 5世紀頃으로 推定되는 平安南道 溫泉郡 新寧里 所在 龍神塚 前室西壁 北部 人物像은 두 손을 合掌하고 서 있는 女人像인데 頭頂上 髮樣의 一部는 壁畫의 毀損剝落으로 不明하나 頭上 前面과 後側面의 髮樣만으로는 머리 中央을 높게 올리고 後頭部는 묶어서 늘어뜨린 髮樣이다(插圖2).

셋째 五(六世紀頃)으로 推定되는 平安南道 龍岡郡 龍岡邑 雙楹塚의 姜道東壁 車馬人物圖에서 다 같이 앞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三女人의 髮型은 긴 머리를 땅아서 머리 中央을 틀어 엮고 나머지 는 귀 밑과 목 밑까지 卷束한 머리를 맞부쳐 틀어 놓았다. 또한 그 머리를 마치 固定시키기 위한 것 같은 手巾을 이마에서 後頭部 中央을 질러 매고 있다(插圖3). 또한 同墓 主室北壁 夫婦圖에서 左側에 座像한 婦人髮樣도 不明하지만 上記한 三女人의 틀어엮은 髮樣과 類似點이 많다.

네째 六世紀頃으로 推定되는 中國 輯安縣 通溝 舞踊塚 主室의 廚房圖에서 接見圖가 있는 北壁을 向해 飲食을 나르고 있는 두 女人中 後者의 髮樣은 앞 머리를 如來像의 肉髻에 髣髴하게 올려 붙인 것으로서(插圖4) 엮은 머리樣式으로 보겠다.

다섯째 前記한 舞踊塚 主室右壁 右部壁畫에서 下面에 歌手로 보이는 七人中 中央의 三人이 女人으로 보이나 下半身이 不明하여 性을 區別짓기 어려워 省略하기로 한다. 다만 그 上面에 五人의 舞踊團員中 左側에서 두번째와 中央의 人物像에서 前者의 頭髮樣은 不明하나 後者의 髮樣은 앞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 頭髮을 後頭部에 부쳤거나 묶고 있다. 이것은 所謂 北髻樣式⑤과 같은 것인데 後頭部의 結髮樣을 볼 수 없어 確言하기에는 無理가 있지만은 前側面 頭髮樣式으로 보아 北髻樣式(插圖5)



插圖 1. 安岳三號墳



插圖 2. 龕神塚



插圖 2. 雙楹塚



插圖 4. 舞踊塚



插圖 5. 舞踊塚



插圖 6. 中國河北省滿城陵山寶綰墓



插圖 7. 角抵塚



插圖 8. 中國山西省司馬金龍夫婦墓

이라고 불만 하다.
 以上 高句麗 古墳壁畫에 보이는 婦女子 頭髮樣式을 다섯 가지로 分類한 데에는 無理가 없지 않다. 그 외에도 몇 개의 頭髮樣式이 보이고 있지만 壁畫의 毀損剝落으로 不明하고 圖版을 利用한 것이므로 詳述할 만한 資料로서 不充分하기에 省略한다.

그런데 이들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婦女子 頭髮은 貴婦人·侍女·演藝人等 몇階層의 女人髮樣式을 보여 주고 있는 外에 또한 年代的이고도 地域的인 樣相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그 民族의 環境이란 空間的으로 地理와 時間的으로 歷史와의 交叉點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⑥. 即四·五世紀頃까지는 頭髮樣式이 高髻 또는 高髮이며 修

飾의 인데 比하여 六世紀頃에 이르면 頭髮이 낮아지고 修飾이 簡便하여 지며 辮髮로서 틀어 엮는 樣式과 쪽 머리 樣式 등이 보이고 있다.

이것을 다시 詳述하면 四~五世紀頃의 高髻에다 修飾의 인 頭髮樣式은 上記한 첫째·둘째 髮樣式이다. 이것은 韓半島地域인 黃海道 所在 安岳三號墳과 平安南道 所在 龕神塚壁畫의 內容으로서 그 地域은 四〇〇餘年間(三二三年까지) 漢民族이 오랫동안 扶植한 모든 文化·風習의 뿌리가 殘存한 樂浪·帶方址이므로 이들 壁畫의 婦人髮樣은 中國 漢族의 樣式이 影響되었을 可能性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서 그 關聯性을 보면

後漢書 馬廖傳 太后上疎條에

聞長安語云 城中好高髻 四方高一尺 城中好廣眉 四方且半額

이라 하여 城中이 高髻를 좋아하여 四方의 높이가 一尺이라 하였고

東觀漢記에도

明德皇后美髮 爲四起大髻 尙有餘髮 繞髻三匝

이라고 한 것 등을 보아서 中國 漢朝 女人의 高髻 및 高髮樣을 알 수 있다.

또한 東晉의 顧凱之 畫筆이라고 傳하는 「女史箴圖」(7)에서 畫卷 最終 畫幅에 머리를 숙이고 서서 종이 위에 붓으로 글씨를 쓰는 女人의 髮樣



圖 1. 傳顧愷之「女史箴圖」(東晉334~408)

은 高髻이며 兩頰에 늘어뜨린 긴 머리와 이마위 앞머리를 가르며 없이 위로 빗어 넘겨 直線을 이루고 있는 것(圖版1) 등은 安岳三號墳 女人圖의 髮樣과 類



圖 2. 傳顧愷之「女史箴圖」(東晉334~408)

似點이 있다. 또한 一九六八年 中國 河北省 滿城陵山寶棺墓에서 前漢期(B、C、一〇〇餘年)의 青銅鍍金으로 된 「燈을 든 宮女像」(插圖6)(圖版7)이 出土되었다(9). 그 宮女銅像은 高髻는 아니지만 앞 이마가 直線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耳部 側面에 길게 늘어뜨린 髮樣 등 아무래도 安岳三號墳 婦人圖 頭髮의 一部를 보여 주고 있으며 後頭 上部에는 쪽 머리 같은 것도 보이고 있다. 上記한 龕神塚壁畫의 두 손을 合掌하고서 있는 女人像의 頭髮도 前面은 高髻에다 後頭部는 묶어 늘어뜨린 것인데 「女史箴圖」에서 後頭部를 結束하여 늘어뜨린 髮樣과의 關聯性을 생각할 수도 있다(圖2). 그런데 이와 같은 高髻 또는 高髮은 「女史箴圖」에서 머리를 빗기고 있는 그림이 男子의 상투를 빗기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 만 辮髮로서 땅은 것이 아니고 被髮自體를 높게 틀어 빗기는 모습이다(圖3). 그리고 上述한 高髻와 兩頰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髮樣은 中國 繪畫나 高句麗 古墳壁畫의 內容으로 보아 特殊階層인 貴婦人 또는 宮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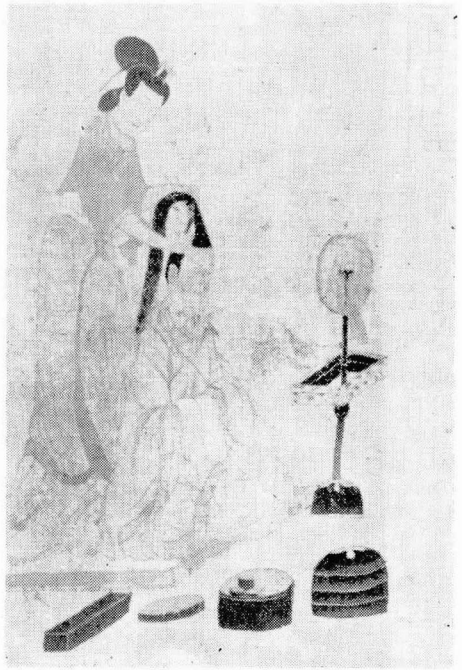


圖3. 傅顧愷之「女史箴圖」
(東晉334~408)

의 頭髮樣式이며 一般化된 婦人髮樣式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六世紀頃의 樣相은 頭髮이 낮아지고 修飾이 簡便하여 鬢樣式이 보이고 있다. 卽 鬢髮樣式으로 보는 것에는 上記한 세째 번 髮樣인 雙楹塚 主室北壁의 夫婦圖에서 婦人髮樣과 美道東壁 車馬人物圖에서 立像한 三女人 頭髮이 手巾을 맨 위로 二、三個의 울음을 통한 曲線으로 나타낸 것은 鬢髮로서 틀어 엮은 髮樣인 것이다. 또한 네째 번 髮樣인 舞踊塚主室의 廚房圖에서 飲食을 나르고 있는 女人의 엮은 머리도 鬢髮로서 틀어 엮은 頭髮樣式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鬢髮에 關해서는 다음과 같은 記錄이 보이고 있다.

晉書 卷九七 四夷列傳 西戎에

吐谷渾……婦人以金花爲首飾 鬢髮縈後綴以珠貝……

라고 하여 四世紀初 北方民族인 吐谷渾의 婦人은 金花로서 首飾을 하고 鬢髮한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周書 卷四九 異域列傳에

吐谷渾……鬢髮於後 首戴金花

라고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⑨. 그 외에도 晉書 卷九十七의 四夷傳 肅慎氏條에 「俗編髮 綴野豬牙 插雉尾 爲冠飾」이라 한 것이나 또한 金史 卷三十九 「鬢髮垂肩與契丹異」라고 있으니 晉代의 肅慎、唐代의 靺鞨、明代의 女眞 어느 것이나 滿州人이며 鬢髮民인 것이다.

三國史記 高句麗 本紀 第五 西川王條 十一年 冬十月에 지금의 吉林 및 그 以東에 살던 北方民族인 肅慎을 征伐하여 諸部落을 統率하게 한 記錄이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鬢髮은 北方民族의 顯著한 髮樣의 特色으로서 그들과 隣接하였거나 同地域內에서 居住하던 高句麗人에게는 鬢髮하였을 可能性이 크다. 以上과 같이 五~六世紀의 古墳壁畫에서 地域的인 樣相을 초월해서 中國 韓安縣 通溝나 韓半島의 平安道地方을 莫論하고 鬢髮로서 틀어 엮은 머리거나 後頭部에 結髮하는 樣式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四~五世紀頃까지의 漢民族의 影響이 衰退하여지고 五~

六世紀頃 부터는 隣接한 北方民族의 影響이 더해진 것이 아닌가 한다. 以上과 같은 頭髮自體로서의 首飾 以外에 冠帽類가 보이고 있다. 上記한 舞踊塚 바로 옆에 同時代로 推定되는 角抵塚壁畫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앉아 있는 두 女人圖는 머리에 巾을 쓰고 있는데 上部가 角이진 고갈形이다(插圖7). 同地區에 있는 三室塚 第一室 南壁 左部壁畫에서 斜格文線 上面에 貴人男女 한 쌍이 前方에 一人 後方에 二人의 侍從을 데리고 걸어 가는데 男女 둘다 頭上에는 冠 또는 巾을 쓰고 있다⑩. 그 中 貴婦人의 머리에 쓰고 있는 巾은 上述한 角抵塚主室의 女人頭上에 쓰고 있는 고갈形 手巾과는 달리 巾으로 보인다. 또한 五世紀頃으로 보이는 平安南道 龍岡郡 修山里古墳의 西壁畫에서 양산을 쓰고 있는 貴婦人이나 양산을 받쳐 주고 있는 侍女가 다 같이 머리에 冠 또는 巾같은 것을 쓰고 있다⑪.

그 외에도 前述한 雙楹塚의 車馬人物圖의 三女人圖에도 모두 머리에 首巾을 매고 있다.

이것은 新唐書 東夷 高句麗傳에 「高麗庶人 衣褐戴鬢 女子首巾幘」이라

고하여 高句麗 女子는 머리에 巾幘을 썼다고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首巾의 首飾樣式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西北地方의 婦女子가 썼던 帕首가 高句麗 婦女子首飾의 殘存인 것 같다¹²⁾. 前述한 頭髮樣式에 서와 같이 首巾樣式에 있어서도 中國 輯安縣 通溝地方과 韓半島의 平安道 黃海道 一帶地方과는 多少의 無理가 따르지만 樣式上의 差異點을 볼 수 있다. 即 通溝地方의 角抵塚 및 三塚家壁畫의 冠 및 巾은 上部 또는 側面이 角形으로 된 高樣式이며 平安道·黃海道地方의 雙楹形 및 安岳三號墳壁畫에서는 裝飾物이던 首巾이던間에 모두 頭髮中間을 묶거나 질러 매고 있다. 이것은 前述한 「女史箴圖」에서 高髻 中間을 질러 맨 首飾이나 또한 一九六五·六六年間에 中國 山西省 大同石家寨 司馬金龍 夫婦墓에서 太和八年(四八四年)의 木板漆畫¹³⁾가 出土 되었는데 漆畫內容은 忠臣孝子等 封建社會의 道德的 人物들의 故事를 描寫하고 있다 (圖4). 畫中에 婦女子 髮樣을 보면 틀어서 얹은 머리 頂上에는 花草로서 裝飾하고 틀어 얹은 머리 中間을 紅色 비단 끈으로 묶어 꾸미고 있으며 左右에는 끈을 늘어뜨리고 있다(插圖8). 그러므로 前述한 頭髮樣式과 같이 北方民族의 影響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보는 中國 通溝地方의 漢族의 影響이 짙은 平安道·黃海道一帶에서는 頭髮中間에 首巾 또는 高髻形 巾首飾과 裝飾으로서의 首飾을 하였다고 본다.

三、百濟

百濟의 婦女首飾에 관한 記錄은 우리나라 文獻中에 없고 古墳壁畫나 繪畫 其他 土俑들까지도 發見되지 않으며 다만 中國史書에서 몇 句節을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周書 卷四十九 列傳 異域에

婦人衣 以袍而袖微大 在室者 編髮 盤於首後 垂一道爲飾 出嫁者乃分爲兩道

라고 하였는데 通典 卷一八五 邊防 東夷百濟에도 上記한 周書內容과 同

한 記事가 보인다. 여기에서 在室者는 뒤에 나오는 出嫁者에 對한 未嫁女로 보아야겠다. 그렇다면 未嫁女는 首後에 編髮 辮髮과 같은 뜻으로 解釋될) 即 머리를 땅아서리고 한 가닥으로 首飾하여 늘어뜨리며 出嫁者는 두 가닥으로 나누었다고 했다.

또한 北史 九十四 列傳 百濟에

婦人不加粉黛 女辮髮垂後 已出嫁則 分爲兩道 盤於頭上.

이라고 하여 隋書 卷八十一 列傳 東夷 百濟의 內容과 同一한 記錄이 보인다. 即 百濟婦人은 粉을 바르지 않고 女子는 辮髮로서 머리를 땅아 뒤에 드리우며 出嫁한 즉 두 가닥으로 나누어 머리위에 서린다 고 했다. 여기에서 周書와 通典에 보이는 未嫁女의 髮樣은 編髮로서 首後에 서리고 나머지는 한 가닥으로 늘어뜨린 樣式이며 北史와 隋書에서는 다만 辮髮로서 뒤에 늘어뜨린 髮樣이다. 앞에 것은 首後에 編髮을 늘어뜨린 外에 首後에 서리고 있는 머리카락 모양이 더하고 있지만은 여하간에 百濟의 未嫁女는 朝鮮王朝時代의 未嫁女가 首後에 한 가닥으로 땅아서 늘어뜨린 樣式의 頭髮樣인 것 같다. 그 反面 出嫁女는 두 가닥으로 辮髮後頭上에



圖4. 中國山西省司馬金龍夫婦墓出土「木板漆畫」(太和8年484)

서리였다고 하였으니 없은 머리樣式으로 보겠다¹⁴⁾.

以上과 같은 頭髮樣式外에 裝飾品으로서의 首飾樣式을 볼 수 있다. 卽 百濟 武寧王(五〇一—五二三) 陵出土品인 金製 뒤꽂이¹⁵⁾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王妃用 이므로 一般화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副葬品이던 實際로 使用했던간에 뒤꽂이의 樣式을 볼 수 있어서 多幸한 일이다. 樣式은 形態面에서 上部는 날개를 활짝 핀 鳥形이며 幅이 넓고 下半部로 내려가면서 차차 좁아져 머리에 꽂는 部分은 三分枝된 釵으로 되었으며 全體의 形態는 三角形을 이루고 있다. 文樣은 上面에 花文 두 개를 左右에 配列하고 中間은 上下로 半球形을 浮刻시켰으며 中下半部에는 唐草文帶를 彫刻하고 있다.

四、新 羅

上記한 百濟에서와 같이 新羅의 婦女에 髮樣 및 首飾에 關한 文獻도 드물다. 그러나 三國史記의 服飾禁制 및 東京雜記에 약간 보이며 그外에 中國史料와 古墳壁畫、繪畫、陶土俑을 參考하고자 한다. 먼저 新羅 婦女 髮樣을 보면

北史 卷九十四 列傳 新羅에

婦人辮髮繞頭 以雜絲及珠爲飾

이라고 하여 婦人은 머리를 땅아 머리에 두르고 비단과 구슬로서 裝飾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記錄도 보인다. 舊唐書 卷一九九 列傳 東夷新羅國에서

婦人髮繞頭 以絲及珠爲飾 髮甚長美

라고 하였으며 五代史 卷一三八 外國列傳 新羅에서도 同一한 內容을 記錄하고 있다. 卽 婦人의 髮은 머리에 두르고 비단과 珠玉으로서 裝飾하였으며 髮은 甚히 아름답다고 하였다.

唐書 卷二百二十 東夷列傳 新羅에

婦長髻……不粉黛率美髮以繚首 以珠絲飾之。

라고 하고 文獻通考 八卷 新羅에도 보이고 있다. 卽 新羅 婦女는 粉단장을 하지 않고 美髮로서 머리에 두르고 珠絲로서 裝飾하였다고 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百濟 婦女의 「盤於頭上」과 新羅 婦女의 「率美髮以繚首」 및 「婦人以髮繞頭」는 同類型的의 頭髮樣式으로 解釋 되겠다. 그外에 新羅 婦女 頭髮에는 上記한 「以珠絲飾之」、「髮甚長美」、또는 太平御覽四夷部 東夷新羅條에 「其人外美髮 髮長丈餘」의 記錄이 더 보이고 있으니 이 記事內容만을 認定한다면 新羅 婦女 髮樣은 百濟에 比하여 보다 修飾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新羅 婦女의 美髮은 긴 머리카락이 있으니 이와 같은 長髮을 그대로 頭上에 서리어 두를 수도 있지만 辮髮로 땅아서 들렀을 樣式도 생각할 수 있다. 여하간에 앞서 말한 中國史料에서는 百濟와 新羅의 婦女 髮樣式은 髮을 頭上에 두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三國史記에는 다음과 같은 記錄이 보인다.

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志 第二色服에

文武王 在位四年 又革婦人之服 自此已後 衣冠同於中國 我太祖受命 凡國家法度 多因羅舊 則至今朝廷 士女之衣裳 蓋亦春秋 請來之遺制歟 이라고 있으니 高麗太祖가 國家의 모든 法度를 新羅의 舊 制度대로 하고 朝廷士女들의 衣裳은 대개 金春秋가 唐에서 請하여온 遺制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七世紀 前半期에 遣唐使로 다녀온 金春秋가 그곳의 衣冠制度를 新羅에 導入하였다고 보면 新羅 婦女 首飾에도 多少나마 影響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다음에 唐代 古墳壁畫와 土陶 俑을 통하여 新羅 婦女 髮樣式을 생각 해 보고자 한다.

中國陝西省 乾縣 所在 八世紀初 唐代의 永泰公主墓(神龍二年, 七〇六年에 造營)의 前室 東壁에 彩色壁畫로 된 「宮女群圖」¹⁶⁾가 있다. 이 壁畫에는 中央을 朱柱로 하여 左에 七人, 右에 九人의 宮女를 描寫하고 있는 것 中에 右側圖(圖版5)이다. 그中 扇을 들고서 있는 女人은 頭髮의 中央을 高髻로 首飾하고 있다. 나머지 女人들은 각자 손에 그릇 등의 물건을 들고서 있는데 그 頭髮樣은 同形으로서 앞머리를 갈라서 左右 耳部後面에 빚어 올렸고 頭頂上에는 辮髮로서 三段의 螺旋形을 서리어



圖 5. 永泰公主의 前室東壁
「宮女群圖」(唐代 8 世紀初)

올린 樣式이다. 이와 같은 頭髮樣式은 前述한 中國史料의 「婦人辮髮繞頭」, 「婦人髮繞頭」, 또는 「率美髮以繚首」라고 하여 新羅婦女는 辮髮 또는 髮로서 頭上에 서리어 두른다는 記事 內容과 相通한다고 보겠다. 勿論 이와 같은 壁畫의 頭髮樣式 등이 新羅에 傳해진 것과는 時間的인 差가 있겠지 만은 그 當時의 流行速度로 보아 風俗·習慣 등에 急激한 變化가 있었다고 는 生覺되지 않으며 그와 같은 樣式이 傳해졌을 可能性이 있다.

다음에 陶俑 및 土偶를 보면 中國 西安市西郊 鮮于庭誨墓에서 出土된 唐中期(開元 一一年 七二三年)의 三彩陶 女人像(圖版 6)과 西安市東郊 史思禮墓 出土品인 唐中期(天寶 三年, 七四四年)의 어린이를 안고 있는 白陶 女人像(圖版 9)이 있다. 이것은 다 같이 16 髮 中央에 高髻 樣式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土陶俑의 高髻樣式은 前述한 「宮 女群圖」의 扇을 들고 있는 高髻의 女人圖와도 相通함으로 新羅에도 頭 髮의 高髻樣式이 流入되었을 可能性이 있다. 以上과 같은 髮樣式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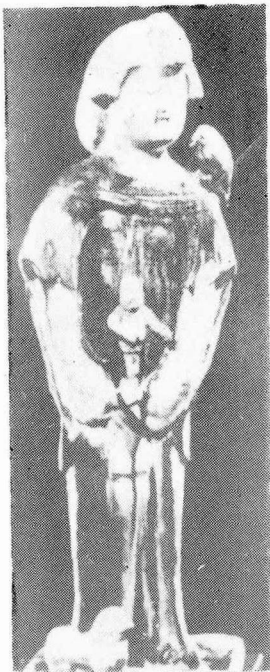


圖 6. 中國西安市西郊 鮮于庭誨墓出「土三彩陶女人像」
(唐中期 723)



圖 7. 中國河北省 滿城陵山 寶綰墓出土「燈을 든 宮女像」
(前漢期 西紀前 100餘年)

新羅에는 다음과 같은 頭髮樣式이 보이고 있다.

東京雜髻 卷一 風俗條에서

女子北髻 羅時以國都北方虛缺 女子 結髮於腦後 因名北髻 至今猶然 이라고 하여 新羅 때에는 國都의 北方이 虛缺하였으므로 女子의 머리를 腦後에 結髮하게 하고 이것을 北髻라고 이름 붙이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東京雜記는 朝鮮王朝 憲宗時의 記錄이므로 「至今猶 然」하다고 하였으니 그때는 이미 쪽 머리가 確立되던 때 이므로 北髻가 「結髮於腦後」한 것은 쪽 머리樣式으로 보겠다. 以上과 같이 新羅婦女 頭

髮樣式은 세가지로 假定해 볼 수 있다. 첫째 頭髮은 頭上에 서리어 두르는 鬢樣式이요, 둘째는 高髻樣式, 셋째는 所謂北髻樣式이라고 보겠다.

다음으로 裝飾品으로서의 新羅 婦女首飾에 關하여서 明記된 것은 없고 다만 三國史記 卷三十三 雜誌 第二色服 禁制項을 通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興德王即位九年 下教曰

眞骨女……釵禁刻鏤及綴珠 禁瑟瑟鈿

六頭品女……釵禁純金以銀刻鏤及綴珠 冠用總羅紗絹

五頭品女……釵用白銀已下 無冠

四頭品女……釵禁刻鏤綴珠及純金 無冠

平人女……釵用鑰石已下

라고 하여 新羅 婦女首飾의 奢侈함을 禁制하였다. 이 記事로 보면 新羅 婦女는 眞骨女부터 平人女에 이르기 까지 釵을 썼았으며 四頭品女까지는 金·銀으로 刻鏤한 釵을 首飾으로 使用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서 「釵」이란 用語解釋대로 본다면 婦人岐算이니 두개로 갈라진 비녀를 뜻하는 것이다. 平壤郊外 樂浪王光墓에서 出土된 길이 八cm(二〇cm)의 釵版(圖8)은 그 樣式을 보면 頭部가 彎曲되어 머리에 꽂는 部分은 兩枝로 되었으며 從斷面은 弧形을 이루고 있다(9). 또한 이와 같은 簪樣式은 唐代 人物畫로 著名한 周昉의 畫中에서도 볼 수 있다. 卽 八世紀後半 唐代 周昉의 「簪花貴婦人圖」(20)에서 犬을 戲弄하고 있는 두 女人의 頭髮樣式은 高髻에다 앞머리 中央에 草花修飾을 하고 頭上部 側面과 頭下部 側面에 頭髮을 固定시키기 위한 釵 들은 二個 또는 三個를 꽂고 있다(圖版9)。그런데 이들 釵은 單純히 頭髮을 固定시키는 目的外에 裝飾的인 것도 보이고 있다. 그것은 一, 三個의 釵頭部가 모두 頭髮의 外部에 彎쳐 나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釵의 樣式은 樂浪出土釵라 같이 頭部가 U字로 彎曲되었고 머리에 꽂는 部分이 兩枝된 것으로 보아 同類型으로 보겠다. 그렇다면 頭髮樣式에서와 같이 釵樣式에 있어서



圖9. 中國西安市 東郊史思禮墓出土「白陶女人像」(唐中期 744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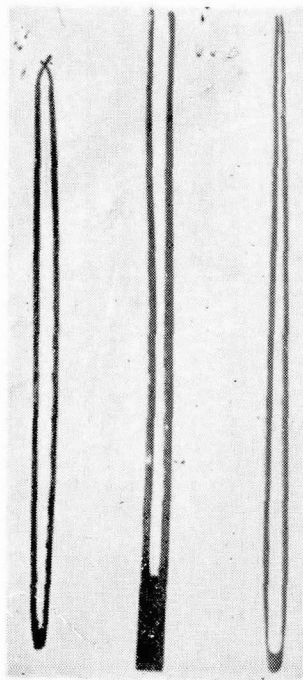


圖8. 樂浪王光墓出土「釵」

도 唐代 女人의 修飾的인 釵樣式이 流入되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그리하여 三國史記 禁制記事의 「刻鏤綴珠」는 彎曲된 釵頭部에 彫刻 裝飾된 것으로 보겠다.

五、

以上과 같은 三國時代 婦女首飾의 樣式은 주로 圖版을 通한 觀察이므로 正確性을 기대하기에는 약간의 無理가 따를 것으로 본다. 그러나 以上의 考察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高句麗에는 다섯가지의 婦女 頭髮樣式이 있었으나 三~四世紀까지의 樣式은 高髻 또는 高髻에다 보다 修飾的인 것이며 이것은 漢族의 影響이 미치지 않았던 것 같고 五~

